

21세기 개혁신학과 역사신학

한정애(협성대학교)

I. 전지구적 위기와 현 신학의 상황

어떠한 신학이나 다 특정 상황을 바탕으로 한다. 옛 신학사상들을 읽으며 지난 수세기 동안 있었던 신학적 토론들을 살펴보면, 그것이 낯설고 사변적인 질문들을 다루고 있다는 인상을 자주 받는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그 질문들이 자주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오늘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는 것은 어쩌면 어려울지라도 당시의 신학들은 대부분이 그 나름대로 중대사였다.

오늘 우리는 21세기의 문전에서 서 있다. 신학의 상황이 근본적으로 변했다. 과거에는 신학이 지역적으로 개교회, 한 행정 구역 혹은 아주 자주 한 국가의 상황에 제한되어 있었으나 오늘 우리에게서 모든 신학의 '삶의 자리'가 전지구적이다. 설사 오늘 우리가 소부분적이며 지역적인 신학적 주제를 다룬다 할지라도 우리사회의 시계(視界)는 항상 전 지구상의 인류 전체이다. 예전처럼 오늘도 신학은 그때마다의 소부분적 분야와 구체적 상황 내에서 그 특정 상황을 위하여 발전된다.

사회의 시계(視界)가 넓어짐으로써 두번째의 것이 다가오고 있다: 오늘날 신학의 상황은 예전보다 훨씬 더 명백하고 단일하게 명명(命名)된다. 기술과 경제의 전지구적 과정이 인간 삶의 개선을 위하여 생겨났었으나, 지금은 그

것이 위협적인 규모로 파괴하고 있음을 우리는 오늘 깨닫는다. 종족과 국가 단체들 간의 인간우애적 공존의 질 뿐만 아니라, 전 인류가 그냥 살아 남는 것조차도 위태로운 상황이다.

이러한 국면(局面)에서 우리는 어떠한 신학적 주제를 택해야 할 것인가?

모든 신학의 특정상황적 관계는 우리가 의논할 주제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학하는 방법과도 관련 있다. 우리는 우리의 시대에 살면서 이 시대의 영향을 받으며 동시에 영향을 미친다. 우리는 우리 주위세계의 산물이요 동시에 생산자이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같아지기보다는 오히려 빛과 소금으로서 그것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려는 노력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늘의 세계 상황에 대하여 함께 큰 책임을 져야만 한다. 인류에게 급박한 많은 위기들이 결정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의하여 생겨났다. 그래서 많은 남녀 신학자들이 교회와 그들의 전통적 신학을 공격했다. 뿐만 아니라 그 비판은 때때로 성경을 향한 것이기도 하다. 인류의 위기는 동시에 신학의 위기이다. 왜냐하면 신학은 하나님의 왕국과 생명에 이바지하는 것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제로 신학은 자주 그렇지 않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신학을 해야 할 것인가?

교회사 내에서 우리는 많은 신학적 시도들을 찾아 볼 수 있는데, 이는 단편적이거나 왜곡된 성서 이해를 수정하며 복음을 재발견하기 위함이었다. 이런 맥락에서 특별히 중요한 시도들 중 하나가 해방신학이다.

바톨로매 드 라스 카사스(1474-1566)는 자주 해방신학의 선조로 불리운다. 그는 도미니칸회단 수도사였으며 라틴 아메리카에서 인디안 선교사로 사역했다. 그는 처음에는 식민지 약탈 정책과 선교 실체에 대하여 근본적으로 무비판적이었다. 식민정책과 선교 실체는 정복한 나라들의 원주민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를 통하여 자유케 하기보다는 폭력으로 압제했으며 노예적 복종을 강요했다.¹⁾

1) "(Die Spanier) schickten nämlich den Indianern Befehle zu, sie sollten sich zum christlichen Glauben bekehren und den Königen von Kastilien unterwerfen, sonst werde man sie mit Feuer und Schwert heimsuchen, erwürgen, zu Sklaven machen,..." (aus dem Tagebuch des Bartholomäus de Las Casas, zitiert nach: Die Geschichte von Bartholomé de Las Casa, 48-52).

그는 곧 라틴아메리카 인디언들 편에 서서 스페인인들의 착취를 반대하여 저항했다. 그는 지배자들이 잔인하고 불의하게 인디언들에게서부터 약탈한 것을 다 돌려 주고 인디언 노예들을 모두 해방시킬 것을 촉구했다.²⁾

라스 카사스는 그의 인디언들을 위한 활동 때문에 유토피아적 몽상가라는 비판을 심하게 받았다. 흥미롭게도 그는 루터 추종자라는 비판도 받았다.

실제로 마틴 루터의 신학도 해방신학으로 이해할 수 있다. 라틴아메리카에서 도미니회단 수도사들이 스페인 정부의 식민지 정책을 반대하여 투쟁하고 있을 때, 거의 동시에 그는 유럽에서 로마가톨릭 교회를 비판했다. 인간 양심을 교회 기관과 로마 교황의 권력으로부터 해방시키는 것이 그의 신학의 주요 관심사였다. 그는 양심이 오직 하나님과 의롭게 하시는 그의 말씀에만 매어 있어야 함을 말했다.³⁾

20세기의 해방신학들 역시 성서의 기존하는 단편적 해석을 반대하며 가난한 자와 소외된 자들의 입장에 서서 복음을 달리 이해하는 운동들이다. 우선 가톨릭교회 범위에서만 생겨난 라틴 아메리카의 해방신학들 외에도 남한에서 거의 독립적으로 개신교 해방신학이 생겨났다: 민중신학이 그것이다.

민중신학은 민중의 처지와 경험을 반영하는 것으로 발전되었다.“70년대의 민중운동은 정의를 위하여 군사독재의 경제적 착취와 정치적 억압을 반대하는 투쟁이었다.”⁴⁾

민중신학은 한국의 사회적 경제적 변화를 통하여 여러 차례 변화되었다. 그러나 복음의 이해는 근본적으로 변하지 않았다: 예수의 복음은 가난한 자와 포로된 자, 눈먼 자와 억압당하는 자를 해방시키고 치유하시며 새 삶을 가

2) De Las Casas war partikular in seinem Denken. Statt die körperlich schwachen Indianer schlug er vor, die kräftigeren Schwarzen aus Afrika als Arbeiter und Sklaven einzusetzen. Beim Engagement zur Befreiung der Indianer ging zu Lasten der Schwarzen. So partikular können wir nicht mehr denken. Die Befreiung muß ganzheitlich sein.; 채수일, 역사의 양심. 양심의 역사, 93-107; 김영동, 바돌로메 라스 카사스, 125-147.

3) F. W.Graf, Wie frei ist Luthers Freiheit?, 148.

4) M. Rhinow, A reflection on the Current Situation of the Minjung Movement, 7.

5) Z. B.Kim, Messiah und Minjung, 3.

져다 주신다.⁶⁾

단지, 가난한 자, 억매인 자, 눈먼 자, 억눌린 자가 이제 더 이상 사회학적으로만 이해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한국기독교장로회의 “민중교회 연합운동” 단체가 1997년 4월 28일 “생명선교연대”로 새로이 자칭한 것으로도 표현된다.⁷⁾

민중교회 연합이 새롭게 만든 자아 명칭은, 이제 더 이상 민중교회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의 민중 운동은 큰 의미에서의 ‘생명신학’ 내에 존재하고 있음이 명백하다.

그리스도교 신학이 항상 생명과 관련된다면,⁸⁾ 신학은 다 ‘생명신학’이다. 그러므로 생명신학은 흔히 그렇게 하듯 ‘생태신학’으로 줄여서는 안 된다. 해방신학 뿐만 아니라 생태학적-사회학적-전체적 신학 그리고 타종교 간의 신학도 ‘생명신학’의 한 형태일 수 있다.

‘생명신학’은 90년대에 현실성 있게 대두되었으며 해방신학의 발전 형태이다. 해방신학은 고통당하는 자들과의 하나님의 연대가 오직 사회학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정치적으로 해석된다는 의미에서 제한적인 것으로 오해될 수 있는 위험에 서 있다. 이것으로써는 해방신학이 하나의 소부분적 신학이 된다.

‘생명신학’에서는 하나님 사역의 전체적이며 포괄적인 차원이 강조되는데, 이는 그것이 만인과 만물의 치유와 공동체를 목적으로 삼는 것이다. ‘생명신학’은 성서가 선포하는 영생의 이해를 새로이 해석하려 한다. 생명은 공동의 삶으로서 이해되며 이 공동의 삶은 상호간의 변화와 사랑을 체험하는 공동체이며 협조의, 가르침의 그리고 축제의 공동체이다.⁹⁾ “우리는 오직 공동으로만 살 수 있다.”¹⁰⁾

그 목적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존엄성을 가지고 풍성한 삶을 누

6) B.M.Ahn, Draussen vor dem Tor, 61.

7) M.Rhinow, A Reflexion on the Current Situation of the Minjung Movement, 7.

8) J. Hübner, Art. Leben VI, 539f.

9) J. Hübner, Art. Leben VI, 546. 555.

10) T. Sundermeier, Nur gemeinsam können wir leben, 22-30.

릴 수 있는 더 정의로운 공동체를 세우기 위함이다.¹¹⁾ 생태학적 변이는 모든 피조물의 상호간 그리고 하나님과의 공동체에 그 가치를 부여한다. 상호 문화적 혹은 종교적 차원에서는 모든 종교와 문화 내에 존재하는, 삶을 장려하는 점과 삶을 대적하는 점들을 찾으며, 비그리스도적 종교와 문화 내에서도 성령 임재의 암시들을 본다.

자녀들이 '축복'이라는 말(성경)은 오늘 더 이상 모든 관점에 있어서 유효하지 않다. 그 이유는, 한 사람의 생명이 다른 한 사람의 생명을 점점 더 제외하기 때문이다(식량 부족, 자원 부족 등...). 전지구적 맥락에서 인구 폭증은 큰 문제들 중 하나이다. 중국이 '한 가정에 한 아이'를 대책으로 삼는 것은 이해가 간다. 그러나 그것은 그리스도교적인 것이 아니며(강요) 독자들의 문제를 초래한다(이기주의). 우리는 오늘 여러 아이들을 가지는 가정들과 아이를 낳지 않는 부부들을 동시에 필요로 한다(보완적). 오직 이러한 전제 조건 하에서만 자식들이 축복이다.

신학에 있어서 전지구적 사고에 가장 적합한 용어는 어쩌면 화해일 것이다. 화해는 소부분적으로 이루어지는 곳에서도 생명에 이바지한다. 생명신학을 위하여 대표적인 개념은 화해이다. 화해의 용어에는 화해가 모든 것에 이바지 함이 표현된다. 화해는 전체적이다.

풍성한 삶의 총괄적 공동체로 향하는 길목에는 많은 저항들이 있다. 수많은 분열과 불의들이 극복되어야만 한다. 한국적 상황에서는 진정한 공동체가 세워지기 위하여 한(恨), 원한(怨恨)의 극복이 필요하다. 이러한 공동체를 세우기 위하여 필요한 전제 조건은 화해이다. 풍성한 생명은 화해의 길목에서만 찾을 수 있다.

다음 단원에서는 '생명신학'을 위하여 화해의 의미에 관해 알아 보기로 한다. 여기에서 화해의 신학은 '생명신학'의 한 형태로 간주된다.

11) H.-J. Gabriel, *Theologie des Lebens*, 91.

II. 생명의 원천으로서의 화해

올해 6월 23-29일까지 오스트리아 그라츠에서 제2차 유럽에큐메니컬총회가 열렸다. 주제는 “화해. 하나님의 선물과 생명의 원천”이었다.¹²⁾ 대립과 갈등으로 인하여 점점 늘어가는 세계의 분열을 대하며 새 희망을 찾기 위하여 동서 유럽에서부터 만명이 넘는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였다. 용기를 불러 일으키는 말도 들을 수 있었다.

독일에서는 며칠전에 라이프치히에서 약 일주일간 “독일복음교회의 날”이 열렸다. 독일 동서부의 국민들이 함께 모여 대화하며 화해의 광장을 열어보려는 노력을 했다. 통독 후 7년이 지난 지금도 아직 어려운 일로 남아 있다. 그러나 참석자들 사이에는, 누구나 자신의 존엄성을 재발견할 수 있는 정의로운 사회를 다 함께 찾아야만 한다는 데 대해 공감대가 이루어진 듯하다.

옛 유고슬라비아에서는 외국 단체들을 통하여 폭력이 제어되고 인권이 회복되어 화해의 과정이 시작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남아공화국에서 온 사절단은 “진리와 화해 위원회”의 치유적 사역에 관해 보고했다. 사람들이 두려움을 극복하고 지난 죄를 고백하며 증언하여 그들의 존엄성을 되찾는다는 소식이었다. 정의 없는 화해가 가능할 것인지에 관하여 비판적으로 질문하는 자가 있을지라도 징벌 대신에 화해를 과감하게 시도한 것이 남아공화국에서는 효과적이었던 것 같다. 그러나 정의가 없는 것이 실제로 화해일까? 어쨌든 죄를 고백하는 자를 다 대사(大赦)한다는 약속은 값싼 은혜가 아니다.

한국 측에서도 역시 기쁜 소식이 있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와 “북한기독교연합” 대표자들이 라이프치히에서 열린 “교회의 날”에 초대되어 만났으며, 점점 더 커져가는 남북한 간의 정치적 긴장이 있는 이 시기에 함께 대화하며 에큐메니컬 화해 예배를 드렸다. 이 예배는 라이프치히 화해 현상의 중요한 일부가 되었으며 그 “교회의 날”을 풍요하게 했다.

각각 그들의 조국에서는 서로를 원수로 선전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큰

12) Die erste Europäische Versammlung fand statt vom 15-21. Mai 1989 in Basel unter dem Thema “Frieden in Gerechtigkeit”.

감격 속에 두 교회 연합 대표자들은 껴안았다. 흥미로운 것은 이 예배가 1989년 동독의 '가을 평화혁명'이 시작되었던 니콜라이교회에서 있었다는 사실이다. 며칠 후 북한 정부는 4자회담에 참여할 것을 전했다.

준비 대화에 대한 남한의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지라도 1997년에는 지금까지 화해를 위한 중대한 노력들이 있었다. 화해가 남아공화국에서 공식적인 정치적 실행의 도구가 된 것은 주목할 만하다.

이 맥락에서 화해는 실제 정치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동시에 화해가 다양하게 이해되고 있음도 언급되어야 한다. 이것은 그라츠에서 열린 유럽 총회에서 아주 분명해졌다. 그곳에서는 특히 정의와 화해의 관계에 관해 토론했다.

생명신학을 위한 화해의 의미를 찾으려면, 우리가 화해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명백히 해야 한다. 우리는 한국인으로서 화해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우리도 유럽에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동일한 이해를 가지고 있는가? 동유럽과 아시아의 정교회 신학자들과 동일한 이해를 가지고 있는가?

II.1. 화해의 한국적 이해

국어에서 사용하는 화해는 한자이다. 우리는 그 어원을 살펴볼 수 있다. 화해의 원래적 의미는 무엇인가?

화해(和解)는 두 개의 한자로 되어 있으며, 또 각각 여러 한자들로 구성되어 있다. 和는 두자로 구성되어 있다. 훌륭한 벼이삭과 말 혹은 입이다. 합하면 이런 의미가 있다: 잘 익은 훌륭한 벼이삭과 같은, 성찰을 통한 지혜로운 말이다. 둘째 자 解는 세 한자들로 되어 있다: 구석(혹은 뿔), 검 그리고 소가 그것이다.

解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 소 한 마리가 뿔로 풀을 엉클어 뜨려 놓은 것을 낫으로 베어 정돈하는 것이다. 혹은 이런 비슷한 해석도 할 수 있다: 소 한 마리가 한 구석에 자라고 있는 풀들을 짓밟아 놓은 것을 낫으로 잘 잘라 정돈하는 것이다.

이 문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좌우에 날선 검과 비교된 히브리서 4장 12절을 기억나게 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켜진 것들을 잘라 버리는 검과 비교되어 있다. 화해의 말은 고통스러울 수 있다.

이 문자에서 소를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 우선 가해자로 볼 수 있다. 가해자는 법과 조화를 방해했고 화해의 말은 그 부조화를 잘라버림으로 새로운 상황을 조성하여 조화된 법을 싹틀 수 있게 한다. 가해자와 그의 행위가 구분되며 화해의 말은 단지 그 행위를 향한 것이다. 검은 소를 향한 것이 아니라 영킨 풀들의 상태를 향한 것이다. 소는 계속 살아 갈 수 있다. 소는 낫을 스스로 들 수 없다. 화해의 말은 가해자가 할 수 없으며 피해자나 제 3자가 할 수 있다.

그러나 소가 피해자로 이해될 수도 있다. 그 무엇인가가 소를 걱정케 했다. 이 걱정은 한(恨)과 상응한다. 한은 불의를 당하나 저항할 수 없을 때 생겨난다.

분노에 찬 소 한 마리가 풀밭을 영켜어 놓는다. 주위가 고통 속으로 휘말려 든다. 화해의 말은 혼란을 제거한다. 이 맥락에서도 소는 낫을 들 수 없다. 그 의미는 이 경우에도 피해자가 화해의 말을 할 수 없고 가해자나 제 3자가 화해를 시도할 수 있다. 이 두번째 의미가 중요하다.¹³⁾

위의 해석을 요약해 보면, 화해의 의미는 이렇다: 깊은 성찰을 통한 지혜의 말은 피해자의 한을 풀어 주고 새로운 시작을 가능하게 한다. 이렇게 되어

13)이 맥락에서 우리는 1997년 8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에서 대통령에게 보낸 편지를 상기해볼 필요가 있다: 무한한 소비경제 체제에 빠져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 통일을 향한 첫 발자국은 이웃사랑이며, 통일의 전제조건이 되는 화해를 위하여서도 우선적으로 나누어야 함을 말하고 있다. 이는 주님의 말씀이 삶이 우선적으로 중시되어야 함을 말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The first step to unify the nation is to love our neighbors." "We, who are addicted to the unlimited consumption economy, could learn abstinence and God's love through sharing with our neighboring North Korean. The first step toward reconciliation is sharing." "... the word of our Lord ... means we should regard life as a first priority.": D.W.Kim, Letter to President from General Secretary of NCCCK, 10). 이렇게 함으로써만이 진정한 화해의 전제조건이 되는 공의와 정의(Gerechtigkeit)가 설 수 있을 것이다.

정돈과 평화가 새로이 성장할 수 있게 되며 조화가 다시 이루어진다.

흥미로운 것은 화해의 원래 의미에 의하면 화해가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다. 이는 피해자의 주관적 사고에서의 변화와 동시에 恨 때문에 파괴된 조화의 변화, 즉 객관적 상황의 변화를 의미한다.

이것이 신유교¹⁴⁾의 발생과 함께 변한 것 같다. 신유교에서는 유교와 도교의 절충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도교가 수용된다. 이것으로써 이세적 유교가 도교적 신비와 연합된 우주론으로 발전되는데 여기에는 상반되는 것들의 더 깊은 본질적 일치가 바탕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신유교는 인간을 변화시키려 하거나 세상을 형성하도록 움직이려 하지 않는다. 오히려 기존상황에 대하여 태연한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미덕이며, 이는 결국 모든 것이 다 하나라는 사고(보완적 이원론)에서부터 가능한 것이다. 신유교적 사고자라면 가능한 한 세상의 조화를 방해하지 않으려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다.

만약 혼란이 왔다면 희생자로서 당하는 불의를 인내하며 지고 가는 것이 미덕이다. 단단히 서 있는 세상 법칙은 혼란해진 조화를 곧 다시 이루어 피해자가 권리를 다시 찾을 수 있게 해줄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고는 기존하는 불의를 상대화하며 덮게 한다. 이는 현재 한국의 화해에 관한 신유교적 이해와 상통한다. 즉 화해는 조화이다. 화해는 정의를 향한 상황의 변화가 아니라 견지(堅持)의 변화일 뿐이다.

이것은 신유교의 위계질서 강조로 인하여 더 강화된다. 상반되는 것들의 수평적 조화를 말하는 도교적 사고가 상반되는 것들의 수직적 조화, 즉 상하 조화의 사고로 변했다. 희생자는 아래에 서서 머물며 그것으로 만족해야만

14) 이동주, 유교와 범신론(Lee, Dong Joo, Konfuzianismus und Pantheismus), 협성논총 제 3집 별쇄본, 1993, 6: Neokonfuzianismus ist ab dem 10. Jh. (Song-, Myeong-Dynastie) in China durch 정이천(Cheong I Cheon, 1033-1108) und 주희암(Choo Hwö Am, 1130-1200) entwickelt worden und schlie ßlich auch von dem Taoismus beeinflusst worden. Obwohl der ursprüngliche Konfuzianismus eine innerweltliche Philosophie und Ethik darstellt, befaßt sich der Neokonfuzianismus(정주학, 주자학, 도학) mit dem Wesen des Menschen und dem Prinzip des Kosmos und beherrschte 500Jahre lang in der Zeit der Yi-Dynastie. Die bekanntesten koreanischen Neokonfuzianer im 16. Jh. sind 퇴계(Tökye, 1519-1561) und 율곡(Yulkok, 1536-1584).

한다.

우리 민족의 극심한 한(恨)¹⁵⁾은 신유교적 화해의 이해가 설사 언젠가 기능을 발휘했다 할지라도 더 이상 효과가 없음을 증명해주고 있다. 생명신학에서는 생명이 공동의 삶으로 이해되며 이 삶은恨이 풀려야만 가능하다.¹⁶⁾ 즉 생명은 상황의 변화를 통한 정의를 전제한다.

유교와 신유교는 근본적으로 그리스도교와 다른 윤리를 가지고 있다. 유교에서는 사람에게마다 각각 다르게 행동해야 한다. 사람의 외모나 명망에 관계 없이 행동하는 것이 유교적 사고자들에게는 완전히 잘못된 행동이다. 유교는 관계 윤리로 서술할 수 있으며, 여기에서는 관계 마다 다른 윤리가 유효하다.

유교적 의미에서의 옳은 행동은 명백히 정의된 관계를 전제로 한다. 서로가 서로를 알 수 있는 단일 공동체 내에서는 이 윤리가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 그러나 일상적 하루의 대부분을 익명으로 존재해야만 하는 오늘의 대도시 사회에서는 그렇지 않다. 대중의 익명 속에서는 유교가 효력이 없다. 오늘 한국에는 사회 여러 분야에 세계관이나 윤리의 빈 공간이 있다. 이 빈 공간에 그리스도교 윤리가 점차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II.2. 그리스도교적 화해

화해의 그리스도교적 이해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화해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 영원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이 되심으로써만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화해가 가능하다.

명사로써의 화해(καταλλαγή) 용어는 신약에서 바울에게서만 사용된다. 이에 의하면 (수직적) 화해는 인간의 행위 없이 이미 이루어진 사실이다. 마태복음 5: 24절에도 이것이 전제되어 있다. 거기에서는 물론 하나님께서 인간과 이루시는 수직적 화해와 인간 사이의 수평적 화해가 끊을 수 없는 관계

15) Der 'Han' ist "deep sense of having been wronged, with accompanying anger or resentment" (J-S. Park, *Life & Minjung Religion*, 1/8).

16) J.-S. Park, *Life & Minjung Religion*, 4/8.

에 있음을 주시하게 한다.¹⁷⁾

화해는 '그냥 슬쩍 닦아버리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속죄의 말씀을 세우는 것이 예수 십자가 희생을 지불하게 했다.¹⁸⁾ 더 강하신 하나님께서 더 연약한 자를 향해 가셨으며 자신의 강함을 포기(자기 비움)하셨다. 화해가 그리스도교 전통에서 다양하게 이해되었을지라도, 화해가 하나님의 본질적 변화 혹은 하나님과 인간의 변화를 의미한다는 점에서는 공감대가 있다.

동방정교회에서는 항상 하나님의 화해를 통하여 인간 역시 본질적으로 변화됨을 강조했다. (아타나시우스의 저서 '말씀의 성육신'에 의하면 인간이 영원을 향해 신(성)화된다.)

서방교회에서는 인간의 본질적 변화에 대하여 비판적이었다. 죄인의 칭의가 동시에 인간의 신(성)화를 의미하거나, 죄인으로서의 존재가 변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루터: '의인인 동시에 죄인').

이렇게 이해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화해가 인간 사이의 화해를 위한 본보기이다. 강한 자가 첫 발자국을 내딛어야 하며 자신의 강함을 포기해야 한다. 이렇게 해야만 화해가 가능하다.

파괴된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으로써의 화해를 이루기 위하여서는 두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우선 저지른 잘못에 대하여 가해자와 피해자가 동일한 이해를 가져야 한다. 이는 가해자가 그의 행위를 고백하고, 어떤 형태의 징벌이라도 받아들이며 보상하기 위함이다. 둘째로, 피해자가 가해자를 용서할 용의가 있어야 한다. '진리와 사랑을 갖춘 정의'¹⁹⁾가 진정한 화해의 바탕이다.²⁰⁾

17) R.Gyllenberg, Art. Versöhnung IV, 1371(-1373).

18) H.Luther, Das Wort von der Versöhnung. In der Bibel beobachtet, (4-)6.

19) Wenn der Täter aber eigene Schuld nicht bekennt oder erkennt, entsteht entweder eine Form von Gerechtigkeit durch eine dritte Person oder eine grausame und rauhe Form der Gerechtigkeit. Dies ist allerdings nicht die wahre Versöhnung.

20) Comfort Women waren Sex-Sklavinnen des Japanischen Heeres. Die japanische Regierung verschleppte sie vor und während des Pazifischen Krieges zu den japanischen Frontbordellen. Das Problem der "Comfort Women" ("Trostfrauen") (1932-45) mit der japanischen Regierung ist noch nicht gelöst, da diese beiden Bedingungen nicht erfüllt sind. Nicht "the Council for the Women Drafted for Military Sexual Slavery by Japan", sondern die japanische Regierung selbst bestimmt

Ⅲ. 결어

그리스도교의 화해 이해는 도교적-유교적 이해와 근본적으로 다르다. 도교적 유교는 차이성의 불가피함을 깨닫는 것이 조화된 해결, 즉 화해이다. 유럽 그리스도교적 측면에서 본다면 신유교적 이해를 비판적으로 고찰해야만 한다. 사회학적으로 말한다면 이것은 지배자를 위한 이데올로기이다.

그리스도교의 화해 이해는 자기 비움이 없이는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화해를 지침으로 삼는다. 진정한 공동의 삶을 가능케 하는 화해는 특권이 없는 자들을 희생시키는 외적-형식적 조화가 아니다. 그것은 진정한 조화를 의미하며 이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며 세우시는 정의 안에서 생명공동체를 이룬다.

수난의 역사와 불의한 사회구조를 가지고 있는 한국은 그리스도적 의미에서의 화해가 시급하다. 남자와 여자 그리고 교회들도 그리스도적 의미에서의 화해와는 아직 멀리 떨어져 있다. 경직된 위계질서적, 가부장적 교회구조들은 화해를 필요로 하고 있다. 한국은 생명을 위한 진정한 화해를 필요로 한다.

참고문헌

- 김영동,
바들로매 라스 카사스: 위대한 인도주의적 선교사, 선교신학 창간호 1997, 한국
기독교학회 선교신학회, 125-147
- 이동주,
유교와 범신론(Lee, Dong Joo, Konfuzianismus und Pantheismus), 협성논총 제
3집 별쇄본, 1993
- 채수일,
역사의 양심. 양심의 역사. 스파르타쿠스에서 알버츠까지, 서울: 다산글방, 1997
- B. M. Ahn,
Draußen vor dem Tor. Kirche und Minjung in Korea in: Theologie der
Ökumene, hg.v. H.-W.Gensichen und T.Sundermeier, Bd. 20, Göttingen 1986
- H.-J. Gabriel,
“Theologie des Lebens”. Zum theologischen und kirchlichen Ansatz bei
Bischof Medardo Gómez in: Nachrichten der Evangelisch-Lutherischen Kirche
in Bayern 5(1996), München, 91-92
- Die Geschichte von Bartholomé de Las Casas in: Arbeitsheft Weltmission '92.
Materialien für Gemeinden, Schulen und Gruppen, Weltmission. Evangelisches
Missionswerk in Deutschland(EMW), Hamburg 1992, 48-52
- F. W. Graf, Wie frei ist Luthers Freiheit? Die Aktualität des Reformators in:
Nachrichten der Evangelisch-Lutherischen Kirche in Bayern 8, 51. Jg., 1996, 148
- R. Gyllenberg,
Art. Versöhnung IV, in: RGG 6, 3. Aufl., Tübingen 1962, 1371(-1373)
- J.H bner,
Art. Leben VI in: TRE 20, hg.v. G.Müller, Berlin, New York 1990, 530-561
- D.W.Kim,
Letter to President from General Secretary of NCKK in: Activity News.
Newsletter of the Nationas Council of Churches in Korea, June/1997, 9-10
- Y.B.Kim,
Messiah and Minjung. Christ's Solidarity with the People for New Life,

Christian Conference of Asia. Urban Rural Mission, Kowloon, Honkong 1992

H. Luther,

Das Wort von der Versöhnung. In der Bibel beobachtet in: Mission. Zeitschrift des Berliner Missionswerkes, Nr. (1 od. 4 ??)(1995) hg.v. Berliner Missionswerk der Evangelischen Kirche in Berlin-Brandenburg, Berlin 1995, (4-)6

J.-S. Park,

Life & Minjung Religion. Theology of Life from the Perspective of Korean Minjung Religion, 1/8 - 8/8 (!KR/DACOMMHS/CHOLLIAN//P994, ID: 0000252552)

M. Rhinow,

A Reflection on the Current Situation of the Minjung Movement in: Prok News, No. 45, Seoul 1997, 7-10

T. Sundermeier,

Nur gemeinsam können wir leben. Das Menschenbild schwarzafrikanischer Religionen, Gütersloh 1988

des 21. Jahrhunderts

Jeong Ae HAN-RHINOW(Hyupsung University)

I. Die gegenwärtige Situation der Theologie im Kontext der globalen Krise

Jede Theologie ist kontextuell. Wenn wir heute frühere theologische Entwürfe nachlesen und theologische Diskussionen vergangener Jahrhunderte nachverfolgen, haben wir häufig den Eindruck, daß diese sich mit weltfremden und spekulativen Fragen beschäftigten. Zu ihrer Zeit bewegten diese Fragen jedoch oft die Herzen der Menschen. Auf ihre Weise waren diese damaligen Theologien meist hei ße Eisen, auch wenn wir das heute vielleicht nur schwer nachvollziehen können.

Heute stehen wir an der Schwelle des 21. Jahrhunderts. Der Kontext der Theologie hat sich in diesem Jahrhundert grundlegend verändert. War der Kontext der Theologie früher lokal begrenzt auf die Situation in der eigenen Gemeinde, der Region oder, wie sehr häufig, der Nation, so haben wir heute einen globalen "Sitz im Leben" aller Theologie. Auch dort wo wir es heute mit partikularen und lokalen Themen der Theologie zu tun haben, ist der Horizont des Denkens immer die gesamte

Menschheit auf der ganzen Erde. Heute wie damals geschieht Theologie im und für den jeweiligen partikularen Bereich, die konkrete Situation. Aber während sie sich früher darauf beschränkte, geschieht sie heute im Blick auf die globale Weltsituation.

Mit dieser Erweiterung des Denkhorizontes geht ein Zweites einher: Der Kontext der Theologie ist heute viel deutlicher und einheitlicher qualifiziert als früher. Wir erkennen heute, daß der technische und wirtschaftliche Globalisierungsprozeß die Grundlagen menschlichen Lebens, die zu verbessern er angetreten war, in bedrohlichem Ausmaß zerstört. Nicht nur die Qualität des menschlichen Miteinanders innerhalb und zwischen den ethnischen und nationalen Gemeinschaften, sondern das bloße Überleben der gesamten Menschheit ist bedroht.

Welche theologischen Themen werden uns in dieser Situation beschäftigen?

Der kontextuelle Bezug jeder Theologie beschränkt sich nicht nur auf die Themen, mit denen wir uns auseinandersetzen, sondern auch auf die Art und Weise, wie wir das tun. Wir sind Menschen unserer Zeit, und als solche werden wir von ihr geprägt und prägen sie zugleich selbst mit. Wir sind Produkt und Mitproduzenten unserer Umwelt in einem.

Christen versuchen, sich der Welt nicht gleichzustellen, sondern sie zu verändern und zu erneuern als Salz der Erde und Licht der Welt. Dennoch haben wir Christen die Situation der Welt heute zu einem erheblichen Maß mitverantwortlich. Viele der bedrängendsten Krisen der Menschheit sind maßgeblich von Christen verursacht. Manche Theologen und Theologinnen haben deshalb die Kirche und ihre traditionelle Theologie angegriffen. Die Kritik richtet sich manchmal sogar auf die Bibel. Die Krise der Menschheit ist zugleich eine Krise der Theologie, denn die Theologie soll dem Reich Gottes, dem Leben dienen, tut dies jedoch faktisch oft nicht.

Wie werden wir in dieser Situation Theologie treiben?

In der Kirchengeschichte finden wir viele verschiedene theologische Ansätze zur Korrektur eines einseitigen oder falschen Verständnisses der Bibel und zur Wiederentdeckung des Evangeliums. Einer der besonders wichtigen Ansätze ist in unserem Zusammenhang die Befreiungstheologie.

Bartholomé de Las Casas (1474-1566) wird oft als der erste Befreiungstheologe genannt. Er war ein dominikanischer Mönch und wirkte für die Indianermission in Lateinamerika. Zunächst grundsätzlich unkritisch gegenüber der Eroberungspraxis der Kolonialherren und einer Missionspraxis, in der man die Urbevölkerung der eroberten Länder anstatt sie zu befreien durch die Verkündigung des Evangeliums von Jesus Christus, sie mit Gewalt unterdrückte und zu knechtischem Gehorsam zwang,¹⁾ ergriff er bald Partei für die Indianer Lateinamerikas und protestierte gegen die Ausbeutung durch die Spanier. Er forderte, daß alles, was die Kolonialherren den Indianern grausam und ungerecht weggenommen hatten, zurückgegeben werden müsse und die indianischen Sklaven freigelassen werden. De Las Casas wurde wegen seines Einsatzes für die Indianer heftig als Utopist kritisiert. Interessanterweise beschimpfte man ihn wegen seines Engagements auch als Luther-Anhänger.²⁾

1) "(Die Spanier) schickten nämlich den Indianern Befehle zu, sie sollten sich zum christlichen Glauben bekehren und den Königen von Kastilien unterwerfen, sonst werde man sie mit Feuer und Schwert heimsuchen, erwürgen, zu Sklaven machen,..." (aus dem Tagebuch des Bartholomé de Las Casas, zitiert nach: Die Geschichte von Bartholomé de Las Casa, 48-52).

2) De Las Casas war partikular in seinem Denken. Statt die körperlich schwachen Indianer schlug er vor, die kräftigeren Schwarzen aus Afrika als Arbeiter und Sklaven einzusetzen. Beim Engagement zur Befreiung der Indianer ging zu Lasten der Schwarzen. So partikular können wir nicht mehr denken. Die Befreiung muß ganzheitlich sein.; 채수일, 역사의 양심. 양심의 역사, 93-107; 김영동, 바돌로메 라스 카사스, 125-147.

In der Tat kann man die Theologie Martin Luthers auch als Befreiungstheologie interpretieren. Etwa zur gleichen Zeit, wie die Dominikaner in Lateinamerika gegen die spanische Kolonialpolitik kämpften, kritisierte er die katholische Kirche in Europa. Es ist ein wesentliches Anliegen seiner Theologie, die Gewissen der Menschen von der Autorität der kirchlichen Institution und des römischen Papstes zu befreien, wenn er von der Bindung des Gewissens ausschließlich an Gott und Gottes gerechtmachendes Wort spricht.³⁾

Auch die Befreiungstheologien des 20. Jahrhunderts waren und sind Bewegungen gegen die bestehende einseitige Interpretation der Bibel und für ein anderes Verständnis des Evangeliums aus der Perspektive der Armen und Marginalisierten. Neben den zunächst nur im Bereich der katholischen Kirche entstandenen Befreiungstheologien Lateinamerikas entstand in Südkorea weitgehend unabhängig davon eine protestantische Befreiungstheologie: die Minjungtheologie.

“Minjung theology evolved as a reflexion of the situation and the experiences of the Minjung.”⁴⁾ Die Minjungbewegung der 70er Jahre war ein Kampf um Gerechtigkeit und gegen wirtschaftliche Ausbeutung und politische Unterdrückung durch die Militärdiktatur.⁵⁾ Die Minjung Theologie hat durch die gesellschaftlichen und wirtschaftlichen Veränderungen in Südkorea mehrfache Veränderungen erfahren.⁶⁾ Dennoch ist das Verständnis des Evangeliums grundsätzlich das gleiche geblieben: Jesu Evangelium befreit und heilt die Armen, die Gefangenen, die Blinden und die Unterdrückten und bringt das neue Leben.⁷⁾

3) F. W. Graf, *Wie frei ist Luthers Freiheit?*, 148.

4) M. Rhinow, *A reflection on the Current Situation of the Minjung Movement*, 7.

5) Z. B. Kim, *Messiah und Minjung*, 3.

6) M. Rhinow, *A Reflexion on the Current Situation of the Minjung Movement*, 7-10, unterscheidet drei Phasen.

7) B. M. Ahn, *Draussen vor dem Tor*, 61.

Die Armen, Gefangenen, Blinden und Unterdrückten werden heute nur nicht mehr von allen ausschließlich im soziologischen Sinn verstanden. Dies kommt auch zum Ausdruck im neuen Namen, den sich die "Vereinigung der Bewegung der Minjung Gemeinden der PROK" am 28. April 1997 gegeben hat: "Solidarität in der Mission für eine Gemeinschaft des Lebens"⁸⁾

Diese neue Selbstbezeichnung der Minjunggemeinden-Vereinigung bedeutet nicht, daß es nun keine Minjunggemeinden mehr gibt. Vielmehr sieht sich die Minjungbewegung der PROK offensichtlich im größeren Kontext der "Theologie des Lebens."

Insofern christliche Theologie immer auf das Leben bezogen ist,⁹⁾ ist jede Theologie auch eine "Theologie des Lebens." So darf die "Theologie des Lebens" nicht, wie es oft geschieht, auf eine ökologische Theologie reduziert werden. Sowohl die Befreiungstheologie als auch die ökologisch-soziologisch-ganzheitliche Theologie und die interreligiöse Theologie können Formen der "Theologie des Lebens" sein.

Die "Theologie des Lebens" ist in den 90er Jahren aktuell geworden. Sie ist eine Weiterentwicklung der Befreiungstheologie. Die Befreiungstheologie steht in der Gefahr, exklusiv mißverstanden zu werden, in dem Sinne, daß die Solidarität Gottes mit den Leidenden rein soziologisch und wirtschaftlich-politisch interpretiert wird. Damit würde die Befreiungstheologie zu einer partikularen Theologie.

In der "Theologie des Lebens" wird die ganzheitliche und umfassende Dimension des Wirkens Gottes, das auf die Heilung und Gemeinschaft aller und alles zielt, betont. Die "Theologie des Lebens" versucht, das Verständnis des ewigen Lebens, das die Bibel verkündigt, neu zu interpretieren. Das Leben ist verstanden als Zusammenleben (Konvivenz,

8) M. Rhinow, A Reflexion on the Current Situation of the Minjung Movement, 7.

9) J. Hübner, Art. Leben VI, 539f.

inter-living, living mutuality) einer Hilfs-, Lehr- und Festgemeinschaft, in der gegenseitige Veränderung und Liebe erlebt wird.¹⁰⁾ "Nur gemeinsam können wir leben."¹¹⁾ Das Ziel ist, eine gerechtere Gesellschaft aufzubauen, in der Menschen als Ebenbilder Gottes ein würdiges und erfülltes Leben haben.¹²⁾

Die ökologische Variante legt dabei Wert auf die Gemeinschaft aller Kreaturen untereinander und mit Gott. Die interkulturelle bzw. interreligiöse Version fragt nach lebensförderlichen und lebensfeindlichen Aspekten in allen Religionen und Kulturen und sieht lebensförderliche Traditionen auch in nichtchristlichen Religionen und Kulturen als Hinweise auf die Gegenwart des Heiligen Geistes.

Kinder als Segen(Bibel) gilt heute nicht mehr in jeder Hinsicht. Der Grund dafür ist, daß das Leben der einen das Leben der anderen zunehmend ausschließt(Lebensmittel ist knapp, Ressourcen sind knapp ... etc.). Im globalen Kontext ist die Überbevölkerung als eines der Hauptprobleme. Chinas Antwort 'ein Kind pro Familie' ist verständlich, aber nicht christlich(Zwang) und Problem der Einzelkinder(Egoismus). Wir brauchen heute Familien mit mehreren Kindern und Ehepaare ohne Kinder gleichzeitig(komplementär). Kinder sind nur noch unter dieser Voraussetzung ein Segen.

Der Begriff, der dem globalen Denken in der Theologie vielleicht am meisten entspricht, ist der Begriff 'Versöhnung'. Versöhnung dient auch dort, wo sie partikular geschieht, dem wohl allen Lebens. Repräsentatives Konzept für Theologie des Lebens ist Versöhnung. Im Begriff der Versöhnung kommt zum Ausdruck, daß Versöhnung allen dient. Versöhnung ist ganzheitlich.

10) J. Hübner, Art. Leben VI, 546. 555.

11) T. Sundermeier, Nur gemeinsam können wir leben, 22-30.

12) H.-J. Gabriel, Theologie des Lebens, 91.

Auf dem Weg zu solcher umfassender Gemeinschaft erfüllten Lebens stehen viele Widerstände entgegen. Eine Vielzahl von Trennungen und Ungerechtigkeiten müssen Überwunden werden. Im koreanischen Kontext ist zusätzlich die Überwindung des Han, des Grolls nötig, damit echte Gemeinschaft entstehen kann. Die Voraussetzung für den Aufbau einer solchen Gemeinschaft ist die Versöhnung. Das erfüllte Leben kann nur auf dem Weg der Versöhnung gefunden werden.

Im folgenden möchte ich nach der Bedeutung der Versöhnung für die "Theologie des Lebens" fragen. Dabei verstehe ich die Versöhnungstheologie als eine Form der "Theologie des Lebens."

II. Versöhnung als Quelle des Lebens

Vom 23. bis 29. Juni dieses Jahres fand in Graz in Österreich die "Zweite Europäische Ökumenische Versammlung" statt. Das Thema lautete: "Versöhnung. Gabe Gottes und Quelle neuen Lebens".¹³⁾ Über 10.000 Christen aus Ost- und Westeuropa trafen sich, um angesichts der zunehmenden Zerrissenheit der Welt durch Gegensätze und Konflikte nach einer neuen Hoffnung zu suchen. Es gab Ermutigendes zu hören.

Aus Deutschland war zu hören, daß der "Deutsche Evangelische Kirchentag" in Leipzig, der wenige Tage zuvor zu Ende gegangen war, versucht hat, Bürger aus Ost- und Westdeutschland miteinander ins Gespräch zu bringen und Schritte der Versöhnung zu eröffnen. Nach sieben Jahren seit der Wiedervereinigung fällt dies noch immer schwer. Aber ich habe den Eindruck, daß es fast einen Konsens unter den Teilnehmerinnen und Teilnehmern gab, daß man gemeinsam nach einer

13) Die erste Europäische Versammlung fand statt vom 15.-21. Mai 1989 in Basel unter dem Thema "Frieden in Gerechtigkeit".

gerechteren Gesellschaft suchen muß, in der jeder seine Würde wiederfinden kann.

Aus dem früheren Jugoslawien war zu hören, daß durch den Einsatz ausländischer Organisationen Gewalt verhindert wurde und Menschen wieder zu ihrem Recht kommen, und so der Beginn eines Versöhnungsprozesses ermöglicht wird.

Gäste aus Südafrika berichteten von der heilenden Wirkung der "Wahrheits- und Versöhnungskommission", daß Menschen ihre Angst überwinden und vergangene Schuld bekennen und bezeugen und so ihre Würde wiederfinden. Der gewagte Versuch einer Versöhnung statt Strafe scheint sich in Südafrika bewährt zu haben. Auch wenn kritische Stimmen fragen, ob Versöhnung ohne Gerechtigkeit möglich sei. Aber ist es denn wirklich Versöhnung ohne Gerechtigkeit? Das Versprechen einer Amnestie für alle, die ihre Schuld bekennen, ist jedenfalls keine billige Gnade.

Aus koreanischer Perspektive war ebenfalls Erfreuliches zu berichten. Vertreter des südkoreanischen "Korean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und der nordkoreanischen "Korean Christian Federation" hatten sich auf Einladung des "Deutschen Evangelischen Kirchentages" in Leipzig getroffen und in einer Zeit zunehmender politischer Spannungen zwischen Nord- und Südkorea miteinander gesprochen und einen ökumenischen Versöhnungsgottesdienst gefeiert. Dieser Gottesdienst wurde zu einem wichtigen Teil des Versöhnungsgeschehens in Leipzig und hat den Kirchentag bereichert.

In einer sehr emotionalen Atmosphäre umarmten sich Vertreter beider Kirchenbrüder, obwohl ihnen in ihrer jeweiligen Heimat einzureden versucht wird, sie seien Feinde. Interessanterweise fand dieser Gottesdienst übrigens in der Nikolai-Kirche statt, von der 1989 die friedliche Herbstrevolution in der DDR ihren Ausgang genommen hatte.

Wenige Tage später kündigte die nordkoreanische Regierung an, daß sie nun an den Vorverhandlungen zu den Vierergesprächen teilnehmen wird. Auch wenn sich für Südkorea die Erwartungen an die Vorgespräche nicht erfüllt haben, so war das Jahr 1997 bisher doch von beachtlichen Bemühungen um Versöhnung geprägt. Es ist besonders beachtenswert, daß Versöhnung in Südafrika zu einem Mittel offiziellen politischen Handelns wurde.

Wenn ich von Versöhnung spreche, dann also vor diesem realpolitischen Hintergrund. Zugleich muß ich aber darauf hinweisen, daß Versöhnung sehr unterschiedlich verstanden wird. Dies wurde in Graz Überdeutlich. Insbesondere wurde dort das Verhältnis von Gerechtigkeit und Versöhnung diskutiert.

Wenn wir nach der Bedeutung der Versöhnung für die "Theologie des Lebens" fragen, so müssen wir uns klar werden, wie wir Versöhnung verstehen. Was meinen wir in Korea, wenn wir von Versöhnung sprechen? Meinen wir dasselbe wie unsere europäischen Glaubensgeschwister? Meinen wir dasselbe wie die orthodoxen Theologen und Theologinnen Osteuropas und Asiens?

II.1. Versöhnung Koreanisch

Der koreanische Begriff für die Versöhnung ist hwa hä(和解, 화해). Das Wort hwa h ist chinesisches. Aus dem chinesischen Zeichen kann man die Etymologie, die Geschichte des Wortes ersehen. Was ist die ursprüngliche Bedeutung von Versöhnung im Koreanischen?

Das Wort hwa hä besteht aus zwei Zeichen, die wiederum ihrerseits aus mehreren Zeichen zusammengesetzt sind. Das erste Zeichen, 和(hwa), besteht aus zwei Zeichen. Einer prächtigen vollen Reisähre und einem Wort oder Mund. Die Bedeutung der Zeichenkombination 和 bedeutet

demnach: Ein wohl berlegtes weises Wort, das einer Üppig tragenden prächtigen Reisähre gleicht. Der zweite Teil des Wortes Versöhnung, 解 (hä), ist aus drei verschiedenen Zeichen zusammengesetzt: Einer Ecke (oder Horn), einem Messer und einem Rind.

Man kann das Zeichen folgendermaßen interpretieren. Ein Rind hat mit seinen Hörnern das Gras zerwühlt, und das verwickelte Gras wird mit der Sichel abgeschnitten. Oder ganz ähnlich: Ein Rind hat das Gras in einer Ecke niedergetreten und das zertretene Gras wird mit der Sichel weggeschnitten.

Spontan erinnert mich dies Bild an das Wort vom zweischneidigen Schwert in Hebr 4, 12. Das Wort wird mit einem Messer verglichen, das das Verworrene wegschneidet. Das Aussprechen des Wortes der Versöhnung kann schmerzlich sein.

Hier im Bild kann das Rind in zweifacherweise interpretiert werden. Es kann zunächst für den Täter stehen. Der Täter hat die Ordnung und Harmonie gestört und durch das Wort der Versöhnung wird die Unordnung weggeschnitten und so eine neue Situation eröffnet, in der wieder eine harmonische Ordnung wachsen kann. Es wird unterschieden zwischen Täter und Tat. Das Wort der Versöhnung ist gerichtet auf die Tat allein. Das Messer gilt nicht dem Rind, sondern dem Gras. Das Rind darf weiterleben. Das Rind selbst kann die Sichel nicht führen. Das Wort der Versöhnung kann nicht vom Täter gesprochen werden, sondern entweder vom Opfer oder von einer dritten Person.

Das Rind kann aber auch für das Opfer stehen. Irgendetwas hat das Rind zornig gemacht. Dieser Zorn entspricht dem koreanischen Han(한, 恨 Han, Haan), den man auch mit Groll Übersetzen kann. Der Groll bzw. 한 entsteht, wenn man Unrecht erleidet, gegen das man sich nicht wehren kann.

Das zornige Rind zerwühlt das Gras. Das bedeutet, die Umwelt wird in

Mitleidenschaft gezogen. Das Wort der Versöhnung beseitigt das Verworrene. Auch hier kann nicht das Rind die Sichel führen. D.h. in diesem Fall kann nicht das Opfer das Wort der Versöhnung sprechen, sondern der Täter oder eine dritte Person. Diese zweite Bedeutung des Bildes ist wohl zentral.¹⁴⁾

Fassen wir unsere Überlegungen zusammen, meint 화해(hwa hä), also Versöhnung, folgendes: Mit einem wohl berlegten weisen Wort wird der Groll des Opfers gelöst und so ein Neuanfang ermöglicht, in dem Ordnung und Frieden neu wachsen können und die Harmonie wiederhergestellt werden.

Interessanterweise zeigt der ursprüngliche etymologische Sinn von 화해, daß Versöhnung Veränderung bewirkt, und zwar eine Veränderung der subjektiven Einstellung des Opfers und zugleich auch eine Veränderung der durch den Groll erzeugten Störung der Harmonie, d.h. der objektiven Situation. Dies scheint sich mit dem Entstehen des Neokonfuzianismus¹⁵⁾

14) 이 맥락에서 우리는 1997년 8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에서 대통령에게 보낸 편지를 상기 해볼 필요가 있다: 무한한 소비경제 체제에 빠져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 통일을 향한 첫 발자국은 이웃사랑이며, 통일의 전제조건이 되는 화해를 위하여서도 우선적으로 나누어야 함을 말하고 있다. 이는 주님의 말씀이 삶이 우선적으로 중시되어야 함을 말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The first step to unify the nation is to love our neighbors." "We, who are addicted to the unlimited consumption economy, could learn abstinence and God's love through sharing with our neighboring North Korean. The first step toward reconciliation is sharing." "... the word of our Lord ... means we should regard life as a first priority." : D. W. Kim, Letter to President from General Secretary of NCKK, 10). 이렇게 함으로써 만이 진정한 화해의 전제조건이 되는 공의와 정의(Gerechtigkeit)가 설 수 있을 것이다.

15) 이동주, 유교와 범신론(Lee, Dong Joo, Konfuzianismus und Pantheismus), 협성논총 제 3집 별쇄본, 1993, 6: Neokonfuzianismus ist ab dem 10. Jh. (Song-, Myeong-Dynastie) in China durch 정이천(Cheong I Cheon, 1033-1108) und 주희암(Choo Hwö Am, 1130-1200) entwickelt worden und schlie ßlich auch von dem Taoismus beeinflusst worden. Obwohl der ursprüngliche Konfuzianismus eine innerweltliche Philosophie und Ethik darstellt, befaßt sich der Neokonfuzianismus(정주학, 주자학, 도학) mit dem Wesen des

geändert zu haben. Im Neokonfuzianismus kommt es zu einer Neubegegnung zwischen Konfuzianismus und Taoismus, wobei der Taoismus rezipiert wird. Damit verändert sich der diesseitige Konfuzianismus und wird ausgebaut zu einem kosmologischen Konzept im Sinne der taoistischen Mystik, die von der tieferen wesentlichen Einheit der Gegensätze ausgeht. Deshalb tendiert der Neokonfuzianismus dazu, die Menschen nicht zur Veränderung und Weltgestaltung zu bewegen. Tugendhaft ist es jetzt vielmehr, gegenüber den bestehenden Verhältnissen Gleichmut zu bewahren im Wissen, daß im Grunde genommen alles eins ist (der komplementäre Dualismus). Für neokonfuzianistisch denkende Menschen ist es erstrebenswert in die Harmonie der Welt möglichst wenig störend einzugreifen.

Kommt es einmal zu Störungen, ist es tugendhaft, z.B. als Opfer erlittenes Unrecht in Geduld zu ertragen. Die stabile Weltordnung wird ihre gestörte Harmonie bald wiederfinden und das Opfer so wieder zu seinem Recht kommen.

Dies führt natürlich dazu, daß man eher dazu tendiert, bestehende Ungerechtigkeit zu relativieren und zu verharmlosen. Dies ist gemeint, wenn im heutigen neokonfuzianistisch geprägten Korea Versöhnung, d.h. hwa hä, als harmonische Lösung verstanden wird. Versöhnung meint heute also keine Veränderung der Situation mehr hin zu Gerechtigkeit, sondern nur mehr eine Veränderung der Einstellung.

Dies wird dadurch noch verstärkt, da der Neokonfuzianismus die Hierarchie stärker betont. Die Harmonie der horizontal gedachten Gegensätze des Taoismus wird nun zur Harmonie der vertikal gedachten Gegensätze, also zur Harmonie zwischen oben und unten. Die Opfer

Menschen und dem Prinzip des Kosmos und beherrschte 500 Jahre lang in der Zeit der Yi-Dynastie. Die bekanntesten koreanischen Neokonfuzianer im 16. Jh. sind 퇴계 (Tökye, 1519-1561) und 율곡(Yulkok, 1536-1584).

stehen unten und bleiben unten und sollen sich damit abfinden.

Der starke Groll bzw. Han¹⁶⁾ des koreanischen Volkes ist ein deutlicher Beweis dafür, daß das neokonfuzianistische Verständnis der Versöhnung nicht mehr wirklich funktioniert, wenn es überhaupt jemals funktioniert hat. In der Theologie des Lebens wird jedoch das Leben als Zusammenleben (Konvivenz) verstanden, das wiederum nur dann möglich ist, wenn der 'Han' gelöst wird.¹⁷⁾ D.h. das Leben setzt die Gerechtigkeit durch die Veränderung der Situation voraus

Konfuzianismus und Neokonfuzianismus haben eine grundsätzlichlich andere Ethik als das Christentum. Im Konfuzianismus muß man sich jedem Menschen gegenüber anders verhalten. Ein Handeln ohne Ansehen der Person wäre für den konfuzianisch denkenden Menschen völlig falsches Verhalten. Man kann den Konfuzianismus als Beziehungsethik beschreiben, wobei in jeder Beziehung eine andere Ethik gilt.

Richtiges Verhalten im Sinne des Konfuzianismus setzt also klar definierte Beziehungen voraus. In einer überschaubaren Gemeinschaft, in der jeder jeden kennt, kann diese Ethik funktionieren. Nicht aber in der heutigen Großstadtesellschaft mit ihrer Anonymität in weiten Teilen des Alltags. In der Anonymität der Masse versagt der Konfuzianismus. Es gibt ganze gesellschaftliche Bereiche im heutigen Korea, in denen ein weltanschauliches bzw. ethisches Vakuum besteht. Ich vermute, daß in diesem Vakuum allmählich die christliche Ethik Fuß faßt.

II.2. Die Versöhnung im Christentum

Das christliche Verständnis von Versöhnung geht von der Versöhnung

16) Der 'Han' ist "deep sense of having been wronged, with accompanying anger or resentment" (J.-S. Park, *Life & Minjung Religion*, 1/8).

17) J.-S. Park, *Life & Minjung Religion*, 4/8.

zwischen Gott und den Menschen aus: Nur dadurch, daß der ewige Gott in Jesus Christus Mensch wird, wird Versöhnung zwischen Gott und den Menschen möglich.

Das Wort Versöhnung (*καταλλαγή*) als Nomen wird im Neuen Testament nur bei Paulus gebraucht. Danach ist die (vertikale) Versöhnung ohne menschliches Zutun bereits geschehene Tatsache. Dies ist auch in Mt 5,24 vorausgesetzt. Dort wird allerdings aufmerksam gemacht auf den unauflösbaren Zusammenhang zwischen der vertikalen Versöhnung Gottes mit dem Menschen und der horizontalen Versöhnung der Menschen untereinander.¹⁸⁾

Vergebung meint nicht einfach 'Schwamm darüber'. Die Aufrichtung des Wortes von der Versöhnung hat die Aufrichtung des Kreuzes Jesu gekostet.¹⁹⁾ Gott der Stärkere ging auf den Schwächeren zu und verzichtete auf seine Stärke (Kenosis). Auch wenn die Versöhnung in der christlichen Tradition in sehr unterschiedlicher Weise verstanden wurde, ist es Konsens, daß die Versöhnung eine wesenhafte Veränderung Gottes bzw. Gottes und des Menschen meint.

In der orthodoxen Ostkirche wurde immer betont, daß durch Gottes Versöhnung auch die Menschen wesenhaft geändert werden. (nach Athanasius: 'De incarnatione verbi' z.B. werden die Menschen zur Ewigkeit vergottet, bzw. vergöttlicht).

In der Westkirche war man der wesenhaften Veränderung des Menschen gegenüber kritischer. Die Rechtfertigung des sündigen Menschen bedeutet nicht zugleich, daß der Mensch vergottet oder sein Sindersein grundsätzlich verändert würde (Luther: 'simul justus et peccator').

Die so verstandene Versöhnung zwischen Gott und Mensch ist das

18) R.Gyllenberg, Art. Versöhnung IV, 1371(-1373).

19) H.Luther, Das Wort von der Versöhnung. In der Bibel beobachtet, (4-)6.

Urbild für die Versöhnung der Menschen untereinander. Wer stärker ist, muß den ersten Schritt tun und auf die eigene Stärke verzichten. Nur so ist Versöhnung möglich.

Es gibt zwei Bedingungen, die Versöhnung als Wiederherstellung des gebrochenen Verhältnisses zu ermöglichen. Die Täter und Opfer müssen zunächst gleiches Verständnis über die begangene Tat haben, damit der Täter seine Tat bekennt(Bekenntnis) und bereit sein kann, jede Form von Strafe zu akzeptieren und wiedergutzumachen (Gerechtigkeit). Als nächstes muß das Opfer bereit sein, dem Täter zu vergeben. Die 'Gerechtigkeit mit Wahrheit und Liebe'²⁰⁾ ist die Basis der wahren Versöhnung.²¹⁾

III. Schluß

Das christliche Verständnis unterscheidet sich also grundsätzlich vom taoistisch-konfuzianischen. Der Taoismus-Konfuzianismus fordert eine Einsicht in die Notwendigkeit der Unterschiedlichkeit und Gegensätzlichkeit. Die Gegensätze müssen bestehen bleiben. Sie sind ja letztlich eins. Im Neokonfuzianismus heißt das dann: Wer stark ist, muß stark bleiben, wer schwach ist muß schwach bleiben. Beide bedürfen

20) Wenn der Täter aber eigene Schuld nicht bekennt oder erkennt, entsteht entweder eine Form von Gerechtigkeit durch eine dritte Person oder eine grausame und rauhe Form der Gerechtigkeit. Dies ist allerdings nicht die wahre Versöhnung.

21) Comfort Women waren Sex-Sklavinnen des Japanischen Heeres. Die japanische Regierung verschleppte sie vor und während des Pazifischen Krieges zu den japanischen Frontbordellen. Das Problem der "Comfort Women" ("Trostfrauen")(1932-45) mit der japanischen Regierung ist noch nicht gelöst, da diese beiden Bedingungen nicht erfüllt sind. Nicht "the Council for the Women Drafted for Military Sexual Slavery by Japan", sondern die japanische Regierung selbst bestimmt die eigene Strafe zur Wiederherstellung des gebrochenen Verhältnisses. Dies ist allerdings nicht akzeptabel.

einander. Die Einsicht in die Notwendigkeit der Unterschiedlichkeit ist die harmonische Lösung, also Versöhnung. Aus europäischer christlich geprägter Perspektive muß das neokonfuzianistische Verständnis kritisch betrachtet werden. Soziologisch gesprochen ist es eine Ideologie der Herrschenden.

Das christliche Verständnis von Versöhnung orientiert sich an der Versöhnung zwischen Gott und dem Menschen, die nicht ohne Kenosis (Entäußerung) zu denken ist. Die Versöhnung, die das wahre Zusammenleben ermöglicht, ist nicht die Äußerlich-formale Harmonie auf Kosten der unterprivilegierten Klassen. Sie ist eine wahre Harmonie, die eine Lebensgemeinschaft in gottgewollter und gottgestifteter Gerechtigkeit schafft.

Wegen seiner leidvollen Geschichte und seiner ungerechten Gesellschaftsstruktur braucht Korea dringend Versöhnung im christlichen Sinn. Auch von einer Versöhnung im christlichen Sinn zwischen Mann und Frau und zwischen den Kirchen sind wir noch weit entfernt. Die starren hierarchischen und patriarchalischen kirchlichen Strukturen brauchen Versöhnung. Korea braucht echte Versöhnung zum Leben.

참고문헌(Literatur)

김영동,

바돌로매 라스 카사스: 위대한 인도주의적 선교사, 선교신학 창간호 1997, 한국 기독교학회 선교신학회, 125-147.

이동주,

유교와 범신론(Lee, Dong Joo, Konfuzianismus und Pantheismus), 협성논총 제 3집 별쇄본, 1993.

채수일,

역사의 양심. 양심의 역사. 스파르타쿠스에서 알버츠까지, 서울: 다산글방, 1997

B. M. Ahn,

Draußen vor dem Tor. Kirche und Minjung in Korea in: Theologie der Ökumene, hg.v. H.-W. Gensichen und T. Sundermeier, Bd. 20, Göttingen 1986.

H.-J. Gabriel,

“Theologie des Lebens”. Zum theologischen und kirchlichen Ansatz bei Bischof Medardo Gómez in: Nachrichten der Evangelisch-Lutherischen Kirche in Bayern 5(1996), München, 91-92.

Die Geschichte von Bartholomäus de Las Casas

in: Arbeitsheft Weltmission '92. Materialien für Gemeinden, Schulen und Gruppen, Weltmission. Evangelisches Missionswerk in Deutschland(EMW), Hamburg 1992, 48-52.

F. W. Graf, Wie frei ist Luthers Freiheit? Die Aktualität des Reformators in: Nachrichten der Evangelisch-Lutherischen Kirche in Bayern 8, 51. Jg., 1996, 148.

R. Gyllenberg,

Art. Versöhnung IV, in: RGG 6, 3. Aufl., Tübingen 1962, 1371(-1373).

J. Hübner,

Art. Leben VI in: TRE 20, hg.v. G. Müller, Berlin, New York 1990, 530-561.

D. W. Kim,

Letter to President from General Secretary of NCKK in: Activity News. Newsletter of the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in Korea, June/1997, 9-10.

Y. B. Kim,

Messiah and Minjung. Christ's Solidarity with the People for New Life, Christian Conference of Asia. Urban Rural Mission, Kowloon, Honkong 1992.

H. Luther,

Das Wort von der Versöhnung. In der Bibel beobachtet in: Mission. Zeitschrift des Berliner Missionswerkes, Nr. (1 od. 4 ??)(1995) hg. v. Berliner Missionswerk der Evangelischen Kirche in Berlin-Brandenburg, Berlin 1995, (4-)6.

J.-S. Park,

Life & Minjung Religion. Theology of Life from the Perspective of Korean Minjung Religion, 1/8 - 8/8 (!KR/DACOMMHS/CHOLLIAN//P994, ID: 0000252552)

M. Rhinow,

A Reflection on the Current Situation of the Minjung Movement in: Prok News, No. 45, Seoul 1997, 7-10.

T. Sundermeier,

Nur gemeinsam können wir leben. Das Menschenbild schwarzafrikanischer Religionen, Gütersloh 1988.